번아웃 직장인, 비구니스님과 동행하다

비구니스님 주인공 영화 '문경'
8월 22일 조계종 청사서 시사회
비구니 역할 배우, 삭발로 화제
윤필암 머물며 '중물' 들이기도
조계종, 영화제작 초기부터 도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8월 22일 조계종 청사에서 열린 영화 〈문경〉 시사회에서 감독과 배우가 인사를 하고 있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요?"

업무와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과부하로 번아웃 증세를 겪는 '문경'(배우 류아벨). 타고난 성실함과 뛰어난 아이디어로 전시회를 성공시켜도 정규직 전환이 어렵기만 한 '초월'(배우 채서안). 문경은 후배 초월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초월의 고향이자 자신과 이름이 같은 문경으로 휴가를 떠난다.

그곳에서 첫 만행을 시작한 비구니 명지 스님(배우 조재경)과 강아지 '길순'을 만나고, 반려견을 잃어버린 '유랑 할매'(배우 최수민)의 집에 머물게 된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가 가진 사연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제 각자의 길을 나서야 하는 시간, 길순의 보호자를 정하기 위해 세 여자가 마당에 섰다. 결정권을 갖게 된 길순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영화 '문경'은 쉼 없이 달려오다 번아웃된 직장인 문경이 휴식을 위해 떠난 경북 문경에서 명지 스님과 강아지 길순을 만나 2박 3일 동안 특별한 동행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담겼다. 로드무비 형식의 전개로 진행되는 영화는 경북 문경의 명소들과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영화 '문경' 시사회가 8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렸다. 제작 준비 당시부터 조계종 교육원이 아낌없는 도움을 준 것이 인연이 됐다. 특히 비구니 명지 스님 역을 맞은 조재경 배우는 교육원이 안내한 비구니스님들에게 스님들의 생활과 습의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회에서 신동민 감독은 "조계종 교육원의 도움으로 시나리오 초창기 스님 8명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가 제작됐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충만한 시간이었다"고 감회를 전했다.

영화의 배경이 된 문경은 독립예술영화계에서 입지를 다진 신동일 감독의 고향이기도 하다. 신동일 감독은 "바쁜 일상 속에서 저마다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잠시 쉬어갈 틈'을 선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문경'에서 각기 다른 세대의 여성 캐릭터들이 전하는 유쾌한 연대를 통해 상처입은 이들을 보듬는 치유의 여정을 그려나갔다"면서 "만행 중인 명지 스님과의 에피소드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인연과보를 담았다. 자극을 더 자극으로 밀어내는데 급급한 도파민 중독 시대에 관객들이 여행과 관계를 통해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지 스님 역의 조재경 배우는 이번 작품을 위해 삭발을 감행했고 역할 몰입을 위해 윤필암에 장기간 머물며 '중물'을 들이기도 했다. 조재경 배우는 "스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영화촬영을 무사히 마칠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스님들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았던 시간"이라고 말했다.

시사회에 앞서 감독과 배우들은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을 예방하고 제작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화 스님은 배우들을 응원하며 "바른 믿음과 이상적인 가치관을 갖은 영화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배석한 문화부장 혜공 스님도 "영화가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감독과 배우들에게도 좋은 결과로 오길 기원한다"면서 "소재가 된 불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길 기대한다"고 축원했다.

민추본, 8기 불교지도자과정 성료

8월 21일 수료식…42명 수료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이끌 불자 양성을 위한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8기가 4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민추본)는 8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8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수료생들은 올해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존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공동대응 및 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교육 받았다.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은 '백두산 및 북중접경지역 평화순례'를 떠난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독립열사들의 투쟁 흔적과 남북관계 평화발전 방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북중접경지역 순례를 통해 민족의 족적을 되짚어보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가령 기자

미얀마·미국·중국 불교 면면 살피다

조계종 사회부, 해외불교세미나



미얀마·미국·중국 해외불교 3개국의 수행 현황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사진〉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도심 스님)가 8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해외불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얀마·미국·중국 3개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수행 현황, 정체성, 대중화 요인 등을 고찰했다.

세미나에 앞서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요즘, 해외 불교계의 수행 동향을 살펴보고 종단과의 교류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해외불교세미나가 종단과 해외불교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월정사, 온 생명 위로하는 무차법회 연다

9월 7일 경내 적광전 특설무대
반려동물, 수자령 합동 천도재


자현 스님이 8월 19일 나무 카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천도하는 법석이 마련된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가 9월 7일 오후 1시 경내 적광전 특설무대에서 '금강경봉찬기도 영가천혼 무차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조상 영가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수자령 모두 차별 없이 천도의 대상으로 확장해 눈길을 끈다. 월정사는 기존에 한 개였던 영단(靈壇)을 세 개로 나눠, △조상 △반려동물 △수자령 천도를 위한 단을 세울 계획이다.

법회에는 기존 종이 위패 대신 영가의 계첩(戒牒)을 위패로, 동참자와 영가의 이름을 적은 호마목(護摩木, 불에 공양물을 태우는 밀교의식인 '호마'에 사용되는 나무)을 축원문으로 사용한다. 기도 후에는 모두 소지(燒紙)해 영가에 공덕을 회향할 예정이다.

월정사 수행원장 자현 스님은 반려동물 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현 스님은 8월 19일 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한국의 반려동물 인구가 1400만명에 달한다. 인간보다 수명이 짧은 반려동물을 잃은 현대인들은 큰 상실감을 겪고 있다. 이는 새롭게 떠오른 문제"라며 "불교는 인간과 동물을 평등한 존재로 보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치유할 것을 주문한다. 불교가 반려동물 천도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현 스님은 "금강경은 49재, 백중 등 영가천도와 관련이 깊은 경전이다. 영가천혼 무차대법회는 금강경 봉찬기도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법회에서 반려동물·수자령을 모두 천도해 모든 생명이 화해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경 봉찬기도는 매일 금강경을 수지독송·사경하는 신행 결사체다. 봉찬기도는 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 스님이 1931년 발의하여 중대 적멸보궁을 중심으로 계승됐으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본사 차원으로 확대해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조계종 전법단 회의…"역량 강화에 최선"

포교원, 포교 활성화 방안 모색



10개 분야 전법단이 그간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성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은 8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전법단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포교원장이자 전법단 총재 선업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전법단 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법단 간 시너지 확대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전법단(단장 정범 스님) 홍대선원의 우수 활동 사례 발표와 청년대학생전법단(단장 일감 스님)의 전법 현황 및 주요 활동이 소개됐다. 10개 분야 전법단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각 현장에서 원활한 포교 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선 종단과 교구본사,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내영 기자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圓 법민당 원담 대종사 寂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민당(法敏堂) 원담(原潭) 대종사가 8월 14일 한국불교원효종 부산 수덕사에서 원적에 드셨습니다.
다비식은 8월 21일 오전10시 영축총림 통도사 다비장에서 엄숙희 봉행하였습니다.
다비식에 참석하여 주신 원로 대덕스님들과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민당 원담 대종사 2재 ~ 막재 일정은 매주 화요일 한국불교원효종 총본산 수덕사에서 봉행합니다.

막재 일정 : 불기 2568(2024)년 10월 1일 오전 10시30분 **장소** : 수덕사 대웅전

한국불교원효종 장래위원회

종 회 의 장	진성	종회부의장	보각
총 무 국 장	혜성	총 무 부 장	묘음
재 무 국 장	혜조	재 무 부 장	법하
호 법 국 장	대성	호 법 부 장	길현

한국불교원효종 원담문도회

백연사(정원) 성불사(진성) 천왕사(대성) 장불사(혜소)
보현정사(묘음) 약사암(혜성) 연화사(혜광) 도솔정사(법하)
용궁사(혜수) 정토사(혜조) 대일암(보각) 석불사(길현)
밀양사(혜영)

한국불교원효종 수덕사

신 도 회 장 하형성 신도부회장 이훈희 총 무 정도덕화 신도대표 서도명화
법당봉사단장 이수선화 봉 사 회 원 장영이 공양간봉사단장 유도선
봉 사 회 원 김정선, 이수례, 유정숙, 김화현, 김경화, 김강자, 조영애

한국불교원효종 종도일동

